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심리검사의 역할과 해석 방안

김민경*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검사 도구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경적 상담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검사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의 정서, 인지, 성격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며 진단과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심리검사 도구들은 세속주의적 사고 방식과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서 검사에 사용되는 용어와 진단의 의미가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 존재의 영적 차원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owlison이 소개한 성경적 변화 모델과 X-ray 질문 기법을 접목하여, 심리검사 결과를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MMPI-2와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한 내담자의 보고를 중심으로 내면의 동기와 신앙의 왜곡된 측면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함을 제시하여 심리검사가 성경적 상담의 실천 현장에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심리검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경적 상담과 심리 진단의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성경적 상담, 심리검사, X-ray질문, 마음의 변화, 동기

* 마음애온상담클리닉 센터장

I. 여는 글

현대 사회는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사건, 사고와 재난 등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3.6%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결과는 2022년 36.0%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에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으로는 가족 및 친지(49%), 의사 및 간호사(44%), 친구 및 이웃(41%) 순이었다. 종교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8%로 낮았지만, 도움을 받은 경우 효과적이었다는 비율은 80%로 다른 대상보다 높게 나타났다(정책브리핑, 202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4).

성경적 상담¹⁾ 현장에서도 상담에 관심이 있는 교회²⁾에서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외부에 상담센터를 두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민간에서 인정된 자격 및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하여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할렐루야교회 상담센터에서는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담자의 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상담의 방향을 세우고 있다. 성경적 상담³⁾에서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인지, 정서, 행동, 대인관계 및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심리검사와 성경적 상담의 접목을 시도한 사례·프로그램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 예컨대 병원·상담센터 검사결과를 해석상담에 통합한 사례(박안나, 2024), 주제통각검사(TAT)를 근거로 집단 돌봄 모델을 구성한 연구(이신형, 2024), 선교지원자의 검사 결과를 공동체 돌봄·개인 맞춤 지원으로 연결한 보고(이두경, 2020), 알코올 중독자 성인 자녀 사례에서 MMPI-2·TCI를 활용한 통합 평

1) 본 논문에서 ‘성경적 상담’은 ‘기독교상담’ 중에서도 성경을 인간 이해와 변화의 중심 기준으로 삼는 접근을 뜻하며,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Adams, 1970; Powlison, 1995).

2) 교회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사들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상담학 석사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성경적 상담 기반의 민간 자격증뿐만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정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심리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할렐루야 교회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검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 더불어, 정부지원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삼일교회의 헤세드상담센터와 남서울교회 상담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어 교회 상담실이 공공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가(김성숙, 2024) 등이 있다. 도구 차원에서는 한국판 영성 척도 개발이 영적 민감성·초월·의미를 구조화했으나 개념·범주가 일관되지 않아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윤미, 2018). 하나님 이미지 척도의 변안과 단축형 타당화를 시도한 연구는 한국 문화에 맞게 단축형 척도를 제시하여 내담자의 정체성과 하나님 관계의 평가에 기여했다(심정연, 2017; 2019; 2024). 공황장애를 지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하나님 이미지 척도와 우울척도(BDI)를 병행하고 Welch(2003)의 동기 질문을 도입하여, 임상 진단과 신앙 개입의 통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양정선, 2019).

또한 기독교 병리학 모델을 기반으로 외상 경험자의 용서 과정을 탐색한 연구는 상처와 고통, 용서의 신학적 의미를 통해 복음적 재해석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한현희, 2020). 이와 더불어 심리학적 진단의 한계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성의 모델로 제시하는 '나침반 모형'을 통해 성경적 진단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안경승, 2007). 최근에는 인간의 문제를 죄·질병·고통의 세 범주로 재구성한 기독교 병리학 모델이 제안되어, 세속적 심리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이 마련되었다(김규보, 2019;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검사를 단순한 증상 분석이 아닌 신학적 해석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는 상담 현장에서의 실천적 활용을 모색했으나, 성경적 인간 이해와 구속사적 변화 모델에 근거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심리검사는 개인의 성격, 지능, 적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특성을 양적 및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이다(최정윤, 2013). 특히 다면적인성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SCT), Wechsler 지능검사, HTP그림검사와 같은 심리검사는 병원 및 센터 등 상담의 현장에서 전반적인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담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이 사용된다(최승원 외, 2022). 심리검사는 행동과 정서를 객관적으로 다루지만 대부분 제작의 근거가 세속주의적 사고 방식과 경험주의적 방법에 기초한다. 이러한 상황은 검사의 용어와 진단이 내포하는 함의가 성경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에서 중심축으로 활용할 때에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김규보, 2025). Welch(1997)는 성경적 상담의 핵심은 인간 문제를 다루는 출발점은 죄성과 은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심리검사도구는 감정이나 증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성경이 조명하는 내면의 동기나 영적 문제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Welch는 감정과 정서가 우리 내면의 상태(심령의 상태)를 드러내며, 단순히 외적 증상을 진단하는 도구로는 인간의 심층적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Welch, 2000).

강연정(2019)은 일반 상담장면에서 사용되는 경청, 공감, 질문, 자기노출, 직면, 요약과 같은 기법이나 초기 면접 기술 및 검사 도구들은 신학적 충돌이 없으므로 성경적 상담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격, 진로, 투사검사, 부부검사와 같은 심리검사 도구의 경우 이론적 배경이나 검사가 지닌 특성이 성경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성경적 상담에 활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타로, 전생 최면 등 비성경적 영성을 바탕으로 한 도구들은 성경적 진리와 양립할 수 없고 배제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정서나 상태를 파악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해석의 틀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성경적 인간관과 구속사적 시각 아래 재구성하여 내담자의 신앙적 성장과 실제 변화를 돕는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논의를 바탕으로, 심리검사가 성경적 상담 현장에서 주호소 문제 및 내담자의 객관적 이해와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그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성경적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심리검사의 활용 가능성과 신학적 한계를 구분하는데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성경적 인간 이해와 성경적 관점을 토대로 심리검사의 결과를 재해석하고 보조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경적 변화 모델과 Powlison의 X-ray 질문 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재해석하고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상담에서 세속 심리검사와 성경적 인간이해에 기초한 심리검사의 활용할 방향과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성경적 변화 모델과 X-ray 질문 기법을 적용하여 심리검사 결과를 재해석하고 상담에 통합적으로 활용한 실제 사례를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가?

II. 펴는 글

1. 이론적 접근

1) 심리검사의 정의와 역할

심리검사는 한 개인의 행동 경향이나 정서적 특성, 성격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평가 과정으로, 단일 검사 도구가 아닌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결합하여

이해를 돕는 도구이다(김재환, 2001). 심리평가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상담 또는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전문가 및 내담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 문서화 작업을 포함한다(Meyer et al., 2001). 심리평가는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형태로 시행되며, 활용되는 자료는 면담, 관찰, 표준화된 자기보고식 측정 등 두 가지 이상의 심리검사를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승원 외, 2022).

Anastasi는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를 “지능, 적성, 흥미, 학업성취도, 성격 특성 등 심리적 속성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 표본을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Anastasi, 1982: 27). 실제 상담의 현장에서 상담 초기 면담·행동·관찰 등을 포함한 심리검사를 토대로 한 진단과 정신장애 평가는 내담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이다(신민섭 외, 2021). 그러나 성경적 상담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다루며, 진단 자체의 분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삶의 변화를 이끄는 구속사적 이해와 회복의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김규보, 2025; 안경승, 2007). 따라서 성경적 상담에서 심리검사를 사용한 진단을 할 때 단순한 병리적 분류가 아닌,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영적 갈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통찰하여 회복의 가능성을 돕는 신앙적 해석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상담자는 심리검사라는 도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성경적 관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단(diagnosis)’이나 ‘진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지식 분야에서 무엇을 식별·구별하고, 어떤 상황과 다른 상황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근원을 따지면서 분석하고 결정짓는 것을 뜻한다. ‘진단하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Diagnosis”, 2025; 전요섭, 2010). 따라서 의학에서는 진단이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과 연결되며, 증상을 철저히 관찰하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치료를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진단은 단순한 표면적 판단이 아니라 통찰력 있는 구별과 인식을 전제로 한다(Pruyser, 2002). Donald E. Capps(1980)는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진단이 상담의 출발점이자 핵심임을 보여준다(전요섭, 2010에서 재인용). Pruyser(1968)는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에서 목회자들이 내담자를 평가할 때조차 정신의학적 언어와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영적 실재를 간과하게 만들며, 진단이란 무엇보다 인간의 내면을 식별하

고 의미를 해석하는 신앙적 통찰의 행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진단의 신학화(theologizing of diagnosis)”를 제안하면서, 진단을 단순한 병리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는 목회적 식별 과정으로 재정의하였다(Capps, 1980; Fichett, 2002). Capps는 ‘진단’을 고정된 병명 부여가 아니라, 내담자의 고통을 해석하고 재구성(reframing) 하여 회복의 방향을 밝히는 목회적 돌봄 및 해석학적 행위로 확장하였다(Dreyer, 2012; Capps, 2012).

이러한 문제의식은 Fitchett(2002)의 영적 돌봄에서 내담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7가지 전인적 차원과 7가지 영적 차원으로 구성된 진단 모델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내담자의 전인적 차원을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가족체계, 인종문화적, 사회적, 영적 차원을 포함한다. 7가지 영적 차원은 신념과 의미, 소명과 결과, 경험과 감정, 의식과 습관, 의례와 행위, 공동체, 권위와 지도 등으로 구성하였다(Fitchett, 2002; 안경승, 2007; 김규보, 2019). 이러한 진단은 심리검사의 결과 분석에서 단지 병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닌 인간 내면에 자리한 신앙의 왜곡과 회복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즉, 진단은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그 결과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심리검사의 기능과 한계를 검토하고, 성경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여 내담자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심리검사의 철학적·인식론적 전제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을 살펴보면 ‘영혼’을 의미하는 ‘psyche’와 ‘학문’을 뜻하는 ‘logos’의 합성어이다. 즉 ‘인간 영혼’ 또는 ‘인간 내면’에 대한 학문으로 인간은 문명이 시작될 때 이미 물질적 영역과 함께 내면과 영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철학과 종교는 학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역할을 해왔다. 현대 심리학이 주목한 주요 영역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과 ‘심리치료’로 나뉜다(김준, 2024). 과학 기법을 심리학에 도입한 Wundt는 인간 내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data)를 수집하고, 이를 수량화(quantification)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심리학의 이론적 배경과 인간관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인체 계측학’으로 인간의 지능과 성격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고, Galton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개인의 차이는 지적 능력의 차이로 보았으며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중요한 공헌으로는 두 측정치 사이 관계의 방향과 나타난 강도의 표준화를 위해 수학적 표현 방식을 개발하였는데 통계학의 기초를 다지며 상관계수와 회귀분석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Cattell은 ‘정신검사(Mental Test)’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지능과 관련된 감각과 운동 반응을 구성한 연구를 확장시켰다. Binet은 Simon은 정신지체아의 진단을 위해서 최초로 체계적인 지능검사를 개발하며 ‘정신연령(mental age)’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검사들은 당시 사회가 구별한 ‘정상 범위’와 비교하여 개인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Lorenstein, 2017; 최정운, 2013). 초기 심리검사의 연구는 주로 지능과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20세기 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인간의 무의식과 심리적 역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으켰고 그 결과 투사검사(projective tests)의 대표적 예인 로르샤흐 잉크반점검사(Rorschach Inkblot Test)와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가 개발 되었다(최정운, 2013). 한편, 자기보고식 검사 방식의 대표적인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는 대상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적 경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최정운, 2013). 지능검사에서는 Wechsler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능검사 도구인 WAIS를 개발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과 활용범위를 넓혔다(Lorenstein, 2017). 이러한 객관적·투사적 심리검사의 발달은 과학적인 측정과 인간의 다양한 심리 기능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한편, Rapaport, Gill & Schafer (1946)는 『*Diagnostic Psychological Testing*』에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단일 검사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총집(Full battery)’ 접근을 제시하였다(최정운, 2013).

이처럼 심리검사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정량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문적으로 임상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성찰이 제기되었다(조아라, 유현경, 안현의, 2004; Sugarman, 2009). 대표적으로 Foucault(1975)는 심리검사 도구를 ‘권력의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평가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특정 집단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권력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Lorenstein, 2017). 심리적 개념은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과 조건 속에서 형성되며 일정한 가치 체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심리적 용어와 개념은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시대적 이념이나 사회적 담론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조아라 외, 2024; Sugarman, 2009).

3) 성경적 상담에서 진단의 신학적 의미

심리검사와 진단은 임상과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 값이 전적으로 진단을 결정짓거나 인간의 경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천성문, 2024). 인간의 심리적 경험은 단순한 수치나 지표만으로 온전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심리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언제나 특정한 해석을 동반하며, 이 해석은 그 근거가 되는 신념 체계, 곧 세계관에 기반을 둔다(김규보, 2025). 전통적 인식론은 '인식의 대상(the knowable)', '인식의 과정(the knowing-process)', '인식의 소유(the possession of knowledge)'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배시은, 안윤경, 김용태, 2015; Spier, 2011), 이는 심리검사가 갖는 본질적 한계와 해석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심리검사는 인간의 내면과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며, 해석의 과정이 중립적이기 보다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식론적 해석학적 틀에 기반한 판단 행위로, 이로 인한 그 활용에는 이론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김규보, 2025).

Kant는 인간의 인식이 단순한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선형적(transcendental) 구조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Pearcey, 2006). '선형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transcendental) 요소를 포함하며, 뛰어넘다, 경계를 벗어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배시은 외, 2015). 이러한 칸트의 관점은 심리검사 해석에도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검사는 인간의 심리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의미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념과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배시은 외, 2015). 예를 들어, 동일한 심리검사 결과라도 상담자의 신념, 내담자의 환경과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심리검사는 객관적 지표를 나타내지만, 본질적으로 해석을 전제로 한다.

Husserl은 인간의 경험을 단순한 현상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드러나는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안명진, 2016). 이 본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며, '어떻게 인식하는가'보다 '무엇이 본질인가'를 묻는 현상학의 핵심 주제이다(배시은 외, 2015; 안명진, 2016). 이러한 시각은 심리검사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현상의 일부분을 수치화할 수 있으나,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 구조와 실존적 의미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안명진, 2016). 이 점에서 Kant와 Husserl의 논의는 성경적 상담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할 때 그 한계와 가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심리검사는 내담자 이해를 돕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때 객관적 진리로 오해하지 않고, 해석과 윤리적·철학적 책임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안명진,

2016). 따라서 성경적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삶의 이야기와 신앙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사용되는 심리검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근거가 되는 이론과 원리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허락된 지혜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마 5:45)에서, 세상의 학문과 기술 또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며,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며, 참된 이해와 회복은 특별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심리검사를 비롯한 세상의 학문적 도구는 성경이라는 기준 아래서 분별하여 활용될 필요가 있다(Frame, 2010; 김규보, 2025). 예를 들어, 심리검사는 우울·불안·성격 등 어느 정도 객관화된 심리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인간의 죄성,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 깊은 영적 갈등 같은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문제까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상담자는 성격검사 결과를 내담자의 기질이나 유형으로 단정할 경우, 복음에 기초한 변화와 회개의 가능성, 성령의 역사 등을 외면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Powlison은 성경적 상담이 세속 심리학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성경적 상담은 비성경적 가정에 기반한 설명을 비판적으로 분별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인간 문제의 본질적 치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Powlison, 2012: 335). Guinness(1994)와 Pearcey(2006)는 기독교인은 학문과 문화를 받아들일 때 성경적 분석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리학이나 심리검사의 각종 개념, 설명, 인간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속적 세계관이나 철학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하고 있다.

Frame(2010)은 일반은총 가운데 주어진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이 참되다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특별은총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김규보, 2025).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 상담자가 심리검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선별적 수용과 신학적 통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게 할 때 심리검사는 전인적 상담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성경적 인간 이해와 심리검사 해석의 신학적 관점

1) 성경적 인간 이해와 심리검사 해석의 신학적 연결

성경적 상담은 인간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개입과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규정하며(창 1:26-28), 상담자는 이 신학적 기초 위에서 인간의 본질이 단순히 물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실체를 포함하여 파악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 규정하며,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은 영적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유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임을 의미한다. 성경은 인간을 이원적 존재로 묘사하며, ‘영’과 ‘혼’은 동일한 실체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설명한다(김준, 2024). 전도서 기자는 12장 7절에서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흄(물질적 실체)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비물질적 실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인간 존재가 물질적 실체와 비물질적 실체의 결합체임을 분명히 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존재임을 나타낸다(Welch, 2012).

성경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원적 존재가 아닌, 몸과 내면 즉 ‘영(spirit)’과 ‘혼(soul)’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전 인격적 존재임을 강조한다(Hoekema, 1990; 김준, 2024).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전개되는 구원드라마의 실재이다(김규보, 2024).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요 1:1-14),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마 6:10). 따라서 인간의 삶은 말씀의 계시와 순종의 구조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요 14:21).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자는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theodrama) 속에서 전개되는 작은 이야기(sub-narrative)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이야기는 결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서 그분의 질서와 목적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인간의 삶을 이와 같은 틀로 조망할 때,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은 인간 존재를 해석하는 근본적 신학 구조로 드러난다(김규보, 2024). 구속사의 내러티브는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경험을 비추는 해석적 빛으로 기능한다(김규보, 2022; 2024). 따라서 성경적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과 문제를 이 네 단계의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 즉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해석하며, 인간의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김규보, 2022; 2024). 이러한 시각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이해하는 성경적 인간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영적 왜곡으로 해석하게 한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며(롬 5:18-19; 고후 5:17), 그 회복은 구속사의 질서 속에서 탐색될 때 통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Emlet(2017)은 저서 『*Descriptions and Prescriptions*』에서 DSM이 제시하는 이상심리와 정신장애 목록이 환자의 증상을 통계적으로 분류한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Emlet; 2017 : 13-14). 그는 이러한 정신의학적 진단이 인간의 고통을 기술하는 데는 일정 부분 유용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병명을 언어화함으로써 실존하지 않는 진단까지 만들어 내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였다(Emlet, 2017; 김규보, 2025). 또한 이러한 목록화된 진단은 원인에 근거한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근원적 원인이나 정체성을 규정하는 틀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Emlet, 2017). 그는 논의는 결국 진단이 인간을 설명하는 완결된 언어가 아닌, 오히려 복음적 통합(redeemed integration)을 향한 과정임을 보여준다(김규보, 2025). Emlet(2018)은 성도를 이해할 때 '성도-고난받는자-죄인'이라는 세 범주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사역의 우선 즉, 정체성 확인·고난 속의 위로·죄에 대한 권면 등을 분별하는 실천적 지침이 된다고 논증한다(Emlet, 2018). 곧, 우리는 형상으로서의 존엄(성도), 타락 세계에서 겪는 상실과 압박(고난), 그리고 하나님 아닌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왜곡(죄)을 함께 본다. 이러한 삼중 범주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에서 직접 도출된다(Emlet, 2023). 실천적으로 말하면, 상담자는 진단명을 내담자에 대한 최종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적 기술 언어로서 제한해 해석한다. 먼저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 확인(saint)을 분명히 하고, 다음으로 내담자가 겪는 고난의 구체성(sufferer)을 충분히 듣고 동행하며, 마지막으로 드러난 죄의 패턴(sinner)에 대해 관계적·예배적 차원에서 마음의 동기와 사랑의 질서를 다룬다(Emlet, 2023).

이는 증상 중심 개입을 구속사적 해석과 엮어, 변화의 동기와 방향을 복음에서 끌어오도록 한다. 성경적 진단은 내담자의 삶과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해석하며, 타락으로 인한 전인적 질서의 붕괴를 살펴보고 그 병리적 역동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인적 구조가 타락 가운데 어떻게 손상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며, 이를 위해 죄(sin), 장애·질병(disorder), 고통(suffering)의 세 범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김규보, 2025; Emler, 2023).

2) 성경적 상담자의 실천적 상담 태도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상담자(Counselor)로 묘사한다(사 9:6). 예를 들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시 17:7; 32:8), ‘지침과 계획’(시 33:11), ‘교훈’(시 73:24) 등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마음의 상태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상담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의 메시지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 사역이다(김준, 2024). Tripp(2010)은 인간이 외부 사건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석자 내면의 신념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김규보, 2025 : 66). 성경은 인간의 고통이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증언하며(창 3:1-7), 고통과 죄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고통을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할 실존적 문제로 본다. 심리검사 결과 또한 이러한 구속사적 시각 아래 조명되어야 하며,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을 정서적 반응으로 다루기보다, 죄와 회복의 여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Powlison, 2009 ; 김규보, 2025).

Welch는 ‘체화된 영혼(embodied soul)’의 관점으로 인간을 해석하며, 인간은 단순히 마음 즉 영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실재와 결합한 불가분하게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인간 문제가 주로 정신병적 질병으로 진단되어 뇌와 신체 중심 해결에 치우치는 경향에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Welch, 2023). Hoekema(1990)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공동체 안의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삼중적 관계 안에 있는 존재이다(김준, 2024). 이러한 이해는 심리검사 결과 역시 성경적 인간관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이나 문제를 단순히 영적 결함으로 환원하지 않고, 신

체적·신경학적 요인을 포함한 전인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Powlison, 1991). 예컨대 충동조절 문제를 회개의 부족으로만 축소하지 않고, 뇌 손상이나 인지 저하와 같은 생리적 요인도 고려하는 태도이다. 이런 접근은 성경적 상담이 과학을 배제하기보다,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추구하며 내담자에 대한 더 깊은 공감과 인내로 나아가게 한다(Welch, 2018).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왜곡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피조물임을 선포한다(고후 5:17).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변화를 회복하는 전인적 사역으로, 상담자의 태도는 내담자를 단순히 분석하거나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복음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김규보, 2025).

성경적 상담 윤리는 진단과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두고, 내담자를 수단화하지 않는 인격적 존중이 핵심 원리이다(김규보, 2025). 상담자는 (1) 검사·진단의 목적·한계·잠재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를 확보하고, (2) 결과 해석 시 과잉 일반화·낙인·결정론을 회피하며, (3) 생물학적·심리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영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별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Welch, 2023).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Welch(2023)가 말한 ‘마음을 읽는 태도’와 연결된다. 상담자가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석이나 행동 관찰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깊은 관심”이라고 하였다. 이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성품—공휼과 은혜(출 34:6),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히 4:15; 마 11:28)—에 근거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 이면에 있는 의도, 소망, 두려움, 죄성, 갈망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담자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왜곡된 해석과 우상을 복음의 빛으로 드러내야 함을 의미한다(Welch, 2023).

3. 성경적 상담에서 심리검사 적용 사례: Powlison의 성경적 변화모델 중심으로

1) 성경적 상담에서 심리검사의 필요성

성경적 상담은 내담자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이해하며, 그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면, 곧 ‘마음’에 집중한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며, 마음은 인간 삶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의 첫 출발은 내담자의 외적 상황을 파악하고 점차 내면의 가치, 동기 관점, 해석, 욕구 등을 살펴보는 점진적인 자료 수집 과정이다(황규명, 2008). 상담자의 직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MMPI-2, TCI기질검사, 문장완성검사, TAT 등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정서, 대인관계, 인지, 자기 인식 등에 대한 성격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여 상담자가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물론 심리검사는 절대적 진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성경적 인간 이해 안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Powlison(1995)은 예레미야 17장을 통해 마음 중심의 성경적 변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더위'는 삶의 고난과 외부적 스트레스를, '사막의 떨기나무'는 하나님과 단절된 내면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과실 맺은 나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Lane & Tripp, 2009). 이 모델 중심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하나님 은혜의 개입이다. 이는 심리학적 기법과 달리 행동 수정이나 정서중심 상담법과 구별되며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닌 '마음의 동기와 우성을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바꾸는 과정'을 포함한다(Lane & Tripp, 2009). 심리검사는 이러한 깊은 내면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과 대화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 반응 신념 구조에 대한 진단 질문 즉, 예를 들면 현미경과 같은 X-ray 질문 등을 통해 상담이 복음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강연정, 2019). 결과적으로, 성경적 상담에서 심리검사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성경적 인간 이해에 조화된 방식으로 신중하게 해석되고 분별되어야 한다(김준, 2024; 황규명, 2008)

CCEF 상담자들은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정보를 참고하여 내담자를 이해한다. 심리검사는 성경적 상담의 중심은 아니지만 초기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 내담자의 감정·사고·행동 뒤에 있는 동기를 탐색하는 단서를 제공한다(강연정, 2019).

2) 심리검사를 성경적 변화 모델에 적용하는 방안

본 절에서는 Powlison(1995)의 성경적 변화 모델을 중심으로, 심리검사 결과가 어떻게 복음적 회개와 신앙적 성숙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가 제시한 성경적 변화 모델은 인간의 삶을 상황(환경), 반응, 마음, 은혜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석한다(Lane & Tripp, 2009). 여기서 '상황'은 내담자가 처한 상황과 고난, '반응'은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행동, '마음'은 그 반응을 이끄는 내면의 동기와 욕망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은혜'는 십자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구속적개입이며, 인간 내면의 본질적 전환을 가능케 한다(Lane & Tripp, 2009). Powlison은 예레미야 17장에 나타난 '더위-마른 떨기나무-믿음-푸른 나무'의 구속적 구조가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았다(김준, 2024; Lane & Tripp, 2009). 심리검사는 이 구조

속에서 '반응'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단서를 제공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으로 향하는 해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MPI-2나 투사검사의 반응에서 불안, 의존, 통제 성향이 나타난다면, 이를 성경적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신념이 어떤 대상에 근거하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성경적 진단 질문(X-ray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한다(Powilson, 1995). 예컨대 “당신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이 없으면 불안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은 심리검사에서 나타난 성향을 이상적 동기나 잘못된 자기 정체성과 연결시켜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Powilson, 2009).

Welch 또한 인간의 감정과 동기를 해석할 때, 단순히 '인지적 오류'나 '감정의 왜곡'으로 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념과 갈망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Welch, 2016). 감정이나 사고는 단순한 신체적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존재의 반응이라고 본다(김준, 2024). 이러한 시각은 상담자가 심리검사의 결과를 신학적 렌즈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검사 결과에 나타난 공격성, 회피, 고립감, 자기비하 등의 경향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정체성 상실, 회개하지 않은 내면의 고통일 수 있다(Powilson, 2009). 아래 (그림 1)은 심리검사의 결과와 성경적 진단 질문을 성경적 변화 모델에 통합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성경적 변화 모델과 심리검사의 활용

이 도식은 심리검사가 단순한 결과 수치가 아닌 마음의 동기를 탐색하고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반응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상담자는 이를 토대로 마음의 욕망과 동기를 탐색한다. 그 결과, 이상과 죄의 뿌리를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 방어기제, 대인관계 및 성향 등에 대한 객관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X-ray질문이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Welch, 2018; Emler, 2017). Powlison(1995)이 말한 ‘마음의 욕망을 비추는 질문’은 이처럼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통찰로 확장될 수 있다(김준, 2024). 따라서 심리검사는 성경적 상담의 해석 과정에서 객관적 관찰과 신학적 분별을 연결하는 유익한 매개체로 기능하며,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단순 사실이 아닌 회개와 순종의 여정으로 이끄는 복음적 해석의 통로로 사용해야 한다(강연정, 2019).

3) 내담자 사례를 통한 심리검사 적용과 분석

지금까지 논의한 심리검사의 활용을 위해 심리검사 결과를 모형에 적용하고 성경적 상담에 실제 적용하였다. 다음은 실제 상담에서 적용된 사례로 ① 심리검사 결과 ② 성경적 질문들 ③ 마음(욕망과 동기) 분석 ④ 내담자 이해를 도출 한 적용의 예이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MMPI-2, SCT, 상담자 관찰 기록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검증하였고,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심리검사와 관련 공인된 자격을 갖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아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 내담자 정보

내담자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 경영관련 전공 후 아르바이트 중이다. 현재 가족과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경험하였으나 학력 제한으로 인한 진급의 어려움, 부모의 반대 속에 사직을 결정하는 등 정서적 좌절과 무력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최근 퇴직 후 6개월 지나며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 “죽을 용기는 없어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 호소와 함께 스스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내담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권위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특히 어머니는 도덕성과 순종을 강조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다. 어린 시절 또래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의 경험,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악한 자의 생각이다”와 같은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억누

르며 살아온 정서적 억압이 많았다. 겉으로는 밝고 유쾌하며 차분한 모습의 인상을 주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자기비난과 공허감, 억제된 분노와 수치심이 내면에 축적되어 있다. 친구들의 만남에서도 편안함보다는 피로감을 느끼며, 대인관계에서는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살 사고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충동적 수준에서 반복되며,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고통이 지속되면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진술하였다. 행동 관찰상에서는 위생상태는 청결하였고 대화 시에 궁금한 점은 질문하는 등 상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담자는 지속적인 우울감과 무력감, 대인관계의 긴장과 소외감, 그리고 신앙적 자기비난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기도해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보고는 내담자가 정서적 피로와 신앙적 혼란 속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호소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면적 인성검사(MMPI-2)와 문장완성검사(SCT)를 실시하였다. 심리검사는 이러한 내담자의 정서적 불균형과 자기비판적 사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표 1>은 내담자의 MMPI-2 주요 척도와 해석 요약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MMPI-2 주요 상승 척도

척도	VRIN	TRIN	F	F(B)	F(P)	FBS	L	K	S	
전체 기준T	42	53F	52	61	47	73	53	44	46	
척도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전체 기준T	60	75	60	48	39	53	67	58	41	70
재구성 임상 : RCd=69T, RC2=71T, RC7=63T / 성격병리 : NEGE=69T, INTR=70T 내용척도 : ANX=71T, DEP=84T, SOD=82T, WRK=64T 보충척도 : A=60T, Es=34T, Do=34T, Mt=74T, AAS=63T										

MMPI-2 결과에서 내담자는 전반적으로 만성적 긴장과 정서적 불안정을 보였으며, 타인의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관계 속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임상척도 중 우울(D=75T), 불안 및 강박적 사고 관련 척도(Pt=76T) 사회적 내향성(Si=70T) 척도가 상승하여, 내담자가 완벽주의적 사고와 통제되지 않는 불안으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Pt척도의 상승은 과도한 자기점검과 결정 회

피, 반복적인 사고 검증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불안을 완화하기 보다 오히려 정서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또한 내담자는 불안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불안이 지속되는 '부동불안'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불안은 감정 억제 및 자기 표현의 제한으로 이어지며,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나 감정에 직면할 경우 조증적 과잉반응(일시적 초조, 충동성, 활동성) 또는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급격한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김형수, 2024). 내용적도에서는 우울(DEP=84T), 사회적 불편감(SOD=82T), 낮은 자존감(LSE=61T), 불안(ANX=71T) 등의 척도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DEP 하위척도인 자기비하(DEP3=80T), 자살사고(DEP4=73T)는 내담자가 삶의 의미에 대해 극도로 무망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반복적인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담자의 문장완성검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서적 갈등, 대인관계의 양가감정, 자기개념의 혼란, 미래에 대한 무망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담자는 자기존중감이 낮고, 지속적인 자기비난과 자기혐오를 보인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는 보고는 자기 수용의 어려움을 시사하며, “60세에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표현은 삶의 의미 상실과 무망감을 나타낸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현실 인식은 유지되지만, 과거에 대한 고통과 미래에 대한 사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앞날은 깜깜하다”,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표현은 부정적 자기서사와 제한된 전망을 시사한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내담자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불안을 중심으로, 우울, 수치심, 애증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 없이 전반적인 삶의 상황에 걸쳐 퍼져 있는 '부동불안(free-floating anxiety)'의 형태로 관찰된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애정과 분노가 뒤섞인 양가감정으로 내면화된 갈등을 유발하며, 이는 주요 대인관계에서 감정적 거리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회피적으로 반응하고, 정서적 후퇴와 위축이 나타난다. 권위자에 대한 긴장감, 관계에서의 이중 감정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처 받기 싫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반영한다. 전반적인 삶의 목표와 의미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 관계의 지속성에 어려움을 보인다.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불안과 회피로 대체되며,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이 반복되는 양상이 있다. <표 2>는 내담자의 문장완성검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문장완성검사 결과

주제	내용 요약 및 해석
어머니에 대한 태도	어머니와 나는 애증의 관계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모순적인 모습이 너무 싫었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	대개 아버지들이란 버팀목이다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다
가족에 대한 태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모순적이다 가식적이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그럼에도 가족이다
여성에 대한 태도	내가 바라는 여인상은 아이를 잘 키우는 여자 여자들이란 예민하고 감정적이다
남성에 대한 태도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허세, 바람, 능력 X, 책임감X /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남자다 무념무상
이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불안함 내가 성교를 했다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친구/친지에 대한 태도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곁에 있어주는 친구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각자 할 일 한다
권위자에 대한 태도	우리 윗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강하다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힘겹다
두려움에 대한 태도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유병장수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유를 모르는 불안증
죄책감에 대한 태도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태도에 대한 반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태도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추진력, 나의 가장 큰 결점은 우울증? 자신의 내적 능력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우울감 및 수동적인 양면적 태도가 존재한다
과거에 대한 태도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젊어지고 싶지 않다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나를 힘들게 한다
미래에 대한 태도	나의 장래는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늘 원하기는 행복하기 언젠가 나는 죽을 것~
목표에 대한 태도	나의 야망은 없다, 60세에 삶을 마감하고 싶다

내담자에게 실시된 검사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심리검사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상태 요약

기능영역	특징
정서	심한 우울감, 자기비하, 불안, 자살사고, 정서 억제
자기	자기혐오, 자존감 결여, 자기 존재의 무가치감
관계	애착 불안, 양가감정, 회피성 대인태도
인지/사고	인지적 경직성, 부정적 미래 전망,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	회피적 방어, 정서 후퇴, 소진, 변화 의욕 결여

(2) 심리검사에 성경적 질문을 적용

① 심리검사로 드러난 표면적 결과 및 그 한계

내담자의 MMPI-2와 문장완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고립, 자기 억압, 정서적 방어의 상태가 나타나며, 내적으로는 삶의 의미 상실, 관계 회피와 갈망의 이중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만성적 긴장과 불안, 즉 부동불안(free-floating anxiety)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 불안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뿐 아니라 삶 전반의 적응력과 관계 유지 능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내담자의 진술은 그 내면의 정서적인 상황과 함께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앞날은 캄캄하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무슨 말도 잘 못 해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한 켠이 허전하고, 또 무슨 일이 터질까봐 두려워요.”

“그건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꾸 ‘너는 안 돼’, ‘너 같은 건 무가치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앙이 약한 제가 문제인 거죠...”

이러한 진술은 내담자의 감정 상태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존재론적 불안 (existential anxiety)과 깊이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마지막 두 진술은 사탄의 정죄적 속임과 자기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현재 감정 상태와 반응 경향을 구조화하여 파악하는 데 유익하지만, 그 근원에 자리한 신앙, 동기, 이상 문제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② 성경적 질문(X-ray 질문)을 통한 마음의 구조 해석

Powlison(2009)이 제안한 X-ray 질문을 적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 중심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내담자의 보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 “사람들이 나를 실망스럽게 보는 것. 그러면 다 떠날까봐 무서워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는가?”

→ “인정받고 싶고,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진짜로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당신 마음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 “악한 자의 말 같아요. ‘넌 안 돼’, ‘넌 사랑받을 수 없어’ 같은 말이 계속 들려요.”

이 모든 문제는 혹시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나요?”

→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신앙이 약해서 다 망쳐놓은 것 같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이러한 답변은 내담자의 부동불안은 단순히 심리학적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상실, 사람의 인정이라는 이상, 사탄의 거짓 음성에 흔들리는 신앙 구조,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면의 왜곡에서 비롯된 정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성경적 질문은 심리검사가 제공하는 외적 정보에 내면의 영적 해석을 덧붙여, ‘왜 불안한가?’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전환시키는 상담적 전환점을 마련한다. 이러한 통합적 해석은 향후 상담 목표 설정—예: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 회복, 은혜 수용 훈련, 자기 존재 이해 재구성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바

탕으로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신앙적 재구성을 목표로 삼는 상담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4>은 이를 적용해 본 것이다.

<표 5> X-ray질문 적용을 통한 마음의 구조 해석

검사 결과	X-ray 질문	내담자 진술	내면의 동기/우상	결과적 반응
높은 불안 (Pt=76T)	당신은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실수해서 모든 걸 망칠까 봐 늘 조마조마해요	통제 욕구, 완벽함 → 실패 공포	반복적 자기 점검, 과도한 긴장 상태 유지
우울, 무기력 (DEP=84T)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불안정한 걸 보면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은혜 불신 → 하나님 왜곡 인식	자기 혐오, 변화 기대 포기, 신앙적 무력감
사회적 회피, 긴장	누구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뭐라 할까봐 긴장돼요	타인 인정 의존 → 관계 안에서 자기 가치 규정	거리두기, 대인관계 단절, 정서 피로
정서 억제, 감정 조절 곤란	감정이 올라올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억누르거나 삼켜요. 터뜨리는 건 더 무섭거든요	자기 보호/억제 → 감정은 죄라는 인식	만성 긴장, 내면 정서 고립, 신체화 가능성
미래에 대한 무망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까?	앞날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상상이 안 돼요	불확실성 공포 → 주권적 하나님 인식 결여	의욕 상실, 비전 회피, 회복 동기 결핍
수치심과 자책, 자기억압	가장 감추고 싶은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해요	자기 정죄, 자격 없음 → 복음적 자기 이해 부재	회개보다는 자기 징벌, 은혜 수용 어려움

Ⅲ. 닫는 글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에서 심리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기존 심리검사의 일반심리학적 기반과 그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경적 인간 이해와 상담의 틀 안에서 심리검사의 유익한 사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성경적 인간 이해, 구속사적 인간 구조(창조-타락-구속-완성), 상담자의 신학적 분별력, 진단의 목적과 윤리성 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연구과정에

서 특히 강조한 점은 심리검사의 결과가 단지 내담자의 정서적 또는 인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성경적 틀에서 해석하고, 내담자의 내면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점이 성경적 상담의 핵심과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2와 문장완성검사를 내담자에게 실시한 결과를 성경적 변화 모델과 X-ray 질문을 적용하여 내담자 마음의 구조를 탐색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 중심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였다. 다음은 정리한 결과이다.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전반적인 이해 즉, 인지, 정서, 행동, 성격 및 정신병리 등을 평가하여 상담과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심리검사는 자연주의적 인간관과 경험주의적 접근의 기반으로 인간의 영적인 본질과 성경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인식론 관점에서 심리검사는 인간의 경험을 통계자료와 객관적 데이터로 환원하는 특성이 있으며, 결과 분석에 있어서 상담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삶의 배경과 경험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마음의 본질은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심리검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도구로 인정될 수 있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왜곡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경적 상담의 목적은 복음의 관점에서 마음의 동기와 방향성을 탐색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데 있다. 심리검사는 단순한 진단의 틀을 넘어, 내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도록 돕는 보조도구로 활용가능하다. 인간의 고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심리적·행동적 특성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실존적 문제이다. 상담자는 검사 결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내담자의 전인적 실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Powlison(1995)의 'X-ray 질문'은 단순한 행동 진단을 넘어 내면의 동기와 우상을 드러내며, 복음 안에서 회개와 변화를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심리검사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단서를 제공하되, 상담자는 이를 유형화나 정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회복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검사로 나타나는 수치를 병리학적 진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당신의 불안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없으면 삶이 불안정한가?'와 같은 X-ray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불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단순한 기질적 반응으로 보지 않고, 죄의 동기와 은혜의 부르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스스로를 재인식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심리검사가 복음적 회개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시도하였다. 심리검사는 성경적 상담 안에서 단순한 진단 도구가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회복으로 이끄는 '해석적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심리검사가 본래 일반 심리학 토대 위에서 개발된 도구로 성경적 시각으로 완전히 재해석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가 한 명의 사례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 배경, 신앙 수준을 반영한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중 사례 분석과 심리검사와 함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Spiritual Well-Being Scale(SWBS) 은 하나님과의 관계(종교적 안녕)와 삶의 의미(실존적 안녕)를 구분하여 영성의 전인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며, Faith Maturity Scale(FMS) 은 신앙의 내면적 확신과 실천적 성숙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도구이다(심정연, 2024; Ellison, 1984). 이러한 척도들과의 비교는 심리검사 결과와 성경적 해석 간의 영적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여, 성경적 상담의 진단적 활용 근거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심리검사의 해석은 상담자의 신학적 성숙도와 해석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반복적 사례 검증과 함께, 심리검사 결과를 성경적 인간관 속에서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기존 연구에서는 드물게 심리검사의 진단 데이터를 X-ray 질문을 직접 연계한 실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담 현장 적용의 실천성을 높였다. 인간의 마음 구조를 성경적 변화 모델에 따라 해석하고, 내담자의 우상·동기·신앙 인식을 드러내는 성경 중심의 진단 틀을 제시하였다. 심리검사의 객관성과 신학적 통찰을 통합하는 가능성을 실제 내담자의 표현과 반응을 통해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 및 실천적 제언으로는 MMPI-2, TCI, SCT, PAI 등 다양한 심리검사에서 특정 결과 유형별로 어떤 성경적 질문이 효과적인인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질문 목록 개발이 필요하다. 성경적 해석을 위한 상담자의 신학·심리 통찰할 수 있는 사례 기반의 훈련 과정이 필요와 실제 상담에서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성경적 상담과 심리검사의 유기적 연결 가능성을 탐색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도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증상 중심이 아닌 마음의 동기 중심으로 결과가 아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하나의 실천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논문 투고일: 2025년 0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11월 04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0일



√

√

√

√

【참고문헌】

-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https://doi.org/10.17841/jocag.2019.27.2.7>
- 김규보. (2021). 죄 진단을 위한 기독교 병리학 체계와 치료적 함의. **신학과 실천**, 76, 339-366. <https://doi.org/10.14387/jkspth.2021.76.339>
- 김규보. (2022). 현대 고통 담론에 대한 성경적 고찰. **복음과 상담**, 30(3), 5-34.
<https://doi.org/10.17841/jocag.2022.30.3.5>
- 김규보.(2023). 중독에 대한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 신경생리 및 심리관계적 질서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107, 59-104. <https://doi.org/10.17156/BT.107.03>
- 김규보. (2024). 구원드라마의 인간 이해와 성경적 상담을 위한 함의: 창조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7, 137-177. <https://doi.org/10.57228/KRJ.67.5>
- 김규보. (2025).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 김성숙. (2023). 알코올중독자 성인 자녀의 관계갈등 경험 탐색과 성경적 상담 기반의 질적 사례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 (2024).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서울: 솔로몬.
- 김형수. (2024). 특정 방어기제 사용에 따른 성격의 조직화 과정을 기반으로 한 MMPI-2 검사 해석.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9(1), 1-25. <https://doi.org/10.15703/kjccsp.9.1.202404.1>
- 박안나. (2024).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경험에 관한 단일 사례연구. **복음과 상담**, 32(3), 55-83. <https://doi.org/10.17841/jocag.2024.32.3.55>
- 배시은, 안윤경, 김용태. (2015). 직관의 이해에 대한 확장적 연구: 성경적 상담적 접근으로. **복음과 상담**, 23(2), 163-194. <https://doi.org/10.17841/jocag.2015.23.2.163>
- 신민섭, 박은희, 최승원 외 10인. (2021). **임상사례로 보는 심리 진단 및 치료**.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심정연.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영성의 역동성.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정연, 김준. (2024).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 개발 연구. **신앙과 학문**, 29(4), 253-272. <https://doi.org/10.30806/fs.29.4.202412.253>

- 심정연. (2024). 영적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기독교 영성을 기반으로. **복음과 상담**, 32(3), 115-137. <https://doi.org/10.17841/jocag.2024.32.3.115>
- 안경승. (2007). 성경적 상담과 병리에 대한 이해. **복음과 상담**, 9, 141-167. <https://doi.org/10.17841/jocag.2007.9..141>
- 안명진 (2016). 후설의 선형적 현상학과 심리학에 대한 비판. **철학연구**, 138, 145-170. <http://dx.doi.org/?10.20293/jokps.2016.?138.?145>
- 양정선 (2020). 공황장애 기독교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변화과정 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정연, 최승원 (2018). 한국 임상심리학자의 종합심리검사에 대한 견해와 활용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7(1), 1-17.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1>
- 윤미 (2018). 한국판 영성 척도의 개발 및 영성과 이타성 간 연민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두경 (2018). 선교지원자 심리검사의 분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파송선교사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형 (2024). 기독교(목회)상담 기반 온라인 소그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선교와 신학**, 63, 387-412. <https://doi.org/10.17778/MAT.2024.06.63.387>
- 전요섭 (2010).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 진단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과 실천신학**, 22, 107-138. <https://www.riss.kr/link?id=A82507549>
- 조아라, 유현경, 안현의 (2024). 한국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성: 비판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적용. **사회과학연구논총**, 40(2), 41-7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963229>
- 천성문, 이영순, 강문선 외 6인 (2024).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심리검사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최승원, 유수현 (2022). 병원 현장에서 사용되는 종합심리검사의 구성 및 활용 실태: 건강보험 수가 산출 구조에 기반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8(3), 539-557. <https://doi.org/10.15842/CPKJOURNAL.PUB.8.3.539>
- 최정윤 (2013). **심리검사의 이해**(2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현희. (2021). 대인 외상을 경험한 기독교인의 용서과정 연구.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Adams, J. E. (2004). **목회상담학** (정정숙, 역, *Competent to counsel*).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원전 1970 출판).
- Capps, D. (1980).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A quest for an integrated ministr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Capps, D. (2012). Gossip, humor, and the art of becoming an intimate of Jesu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1(1), 99-117. <https://doi.org/10.1007/s10943-010-9382-3>
- Dreyer, Y., & Akih, A. A. (2012). Pastoral care with prisoners in Cameroon: An intercultural, pluralist, embodiment approach. *HTS Th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68(2), a1185. <https://doi.org/10.4102/hts.v68i2.1185>
- Emler, M. R. (2017). *Descriptions and prescriptions: A biblical perspective on psychiatric diagnoses and medications*.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 Emler, M. R. (2018a). Loving others as saints, sufferers, and sinners (Part 1).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32(1), 33-47.
- Emler, M. R. (2018b). Loving others as saints, sufferers, and sinners (Part 2).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32(2).
- Emler, M. R. (2021). *Saints, sufferers, and sinners: Loving others as God loves us*.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38. <https://doi.org/10.1177/009164718301100406>
- Fitchett, G. (2001). **영적 진단을 위한 지침** (유영권 역, *Assessing spiritual needs*).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2001 출판).
- Foucault, M. (2020).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Surveiller et punir*). 경기: 나남. (원전 1975 출판).
- Frame, J. M. (2014). **성경론** (김진운 역,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원전 2010 출판).
- Lambert, H.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 (김준 역,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11 출판).

- Lorenstein, J. (2017). **사이코북** (이지연 외 역, *Psychobook*). 서울: 파라북스. (원전 2016 출판).
- Meyer, G. J., Finn, S. E., Eyde, L. D., Kay, G. G., Moreland, K. L., Dies, R. R., Eisman, E. J., Kubiszyn, T. W., & Reed, G. M. (2001). Psychological testing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A review of evidence and issues. *American Psychologist*, *56*(2), 128-165.
- Powlison, D. (1995). Idols of the heart and Vanity fair.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2), 35-50.
- Powlison, D. (2009). *Speaking truth in love: Counsel in community*.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 Powlison, D. (2009).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 (김준 역, *Seeing with new eyes*). 서울: 그리심. (원전 2003 출판).
- Powlison, D.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김찬영 역, *Psychology and Christianit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0 출판).
- Pearcey, N. (2006). **완전한 진리** (홍병용 역, *Total truth*). 서울: 복있는사람. (원전 2004 출판).
- Pruyser, P. W. (2002). **진단자로서의 목사** (유희동 역,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quotes*). 서울: 기독교문화사. (원전 1976 출판).
- Spier, J. M. (2011). **기독교철학개론** (문석호 역,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1976 출판).
- Tripp, P. D., & Tripp, T. (2016).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김준수 외 역, *How people change*).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전 2007 출판).
- Welch, E. T. (1997). What is biblical counseling, anyway?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1), 8-16.
- Welch, E. T. (2000). Counseling those who are depressed.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8*(2), 5-22.
- Welch, E. T. (2010).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한성진 역, *Blame it on the brain?*).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98 출판).
- Welch, E. T. (2012). **큰 사람 작은 하나님** (김찬규, 이하은 역,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원전 1997 출판).
- Welch, E. T. (2019). Questions about questions.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33(3), 2-10.

Welch, E. T. (2023). Distinctives of biblical counseling.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85, 101-117.

APA 심리학 사전. <https://dictionary.apa.org/diagnostics>에서 2025년 1월 15일 인출.

Welch, E. T. (2016). Psychological Tests: Are You For or Against?. <https://www.ccef.org/psychological-tests-are-you-or-against>에서 2025년 1월 15일 인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배포).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no=9742&fno=106&gubun_no=6&menu_cd=04_03_00_02&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에서 2025년 1월 15일 인출.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에서 2025년 1월 15일 인출.

[Abstract]

The Role and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esting in Biblical Counseling

Kim, Min Kyoung*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and to identify practical applications for biblical counseling. In general, psychological assessment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a client's emotional, cognitive,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counseling, helping to inform diagnosis and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However, existing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developed with a secular mindset and statistical analysis in mind, have a fundamental flaw in that they fail to fully capture the spiritual dimension of human existence and the nuances of human understanding as presented in the Bibl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actical example of reinterpreting and applying psychological test result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by integrating Powlison's biblical change model and the X-ray question techniqu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approaches. Through the research method, the distorted aspects of internal motivation and faith were interpreted based on the client's reports from actual counseling sessions, where MMPI-2 and sentence completion tests were administer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ctual change is possible through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with God, and they propose that psychological testing can be a valuable tool in facilitating spiritual and spiritual insights in the practice of biblical counseling.

Key words: Biblical counseling, psychological testing, X-ray questions, change of heart, motivation

* Maum-On Counseling Clinic / Director